

오피니언

다산포럼

정지창



성장소설의 주인공들은 왜 소녀가 아니라 소년일까?...

한다. 전통시대에 고향을 떠나는 여성은 자신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강요에 의해 떠나...

심청의 탈향과 귀향

을 제물로 바치고(논개, 유디트, 이교게니 아), 죽은 아버지를 살리거나 눈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환천길과 임당수까지 마다하지 않는(바리데기, 심청) 여성들은 어떤 점에서 당시의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이상화된 여성들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떠남과 탈향의 무대는 세월이 흐르면서 청교도적 질서와 신장교와 성향당 고갯마루, 나무터에서 기차역과 부두, 터미널, 공항 등으로 바뀌었지만 언제나 떠나는 것은 남자가 남는 것은 여자다.

하기 위해 거간꾼 백덕아미의 꾀에 따라 뱃사람들에게 심청이를 대국 땅 청루로 팔아먹는다. 심청은 청루에서 참녀생활을 하다가 마음씨 좋은 조선 인삼장수 김서방을 만나...

을 대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박완서의 '그 많은 심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대학 구조조정 재학생 피해 없도록 해야

정부가 고강도 대학 구조조정에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전체 346개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 28곳, 전문대 15곳 등 시립대 43곳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해 발표...

서 20년 사이 무려 1백 개 이상이 늘어나는 등 포화상태다. 우리 사회의 학력 인플레도 심각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실·비리 대학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디자인비엔날레, 운영·준비 미흡하다니

격년제로 치러지는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가 국제적인 비엔날레로 우뚝 서기 위해선 완벽한 준비와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정 어번폴리를 설치하다 보니, 갑자기 생겨난 조형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고 있다는 얘기가.

기고

새로운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안영섭

인류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곳곳에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에도 해양과 우주 공간은 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는 채 속내를 쉽게 보여주지 않는다.

대한 각국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치열해지고 있다. 가깝게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오키노토리시마와 관련된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이면에는 해저의 망간단괴와 같은 자원과 전략적인 중요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경찰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고 새로운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하는 해양경찰에 축하를 드린다. 최근 들어 해양경찰이 우리 사회에 보여 주었던 활약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함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의 조업활동을 보장하고 도서지역이나 연안 선박의 긴급한 환자 수송 업무를 수행해 사회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NGO 칼럼

나가라, 쉬어라, 그만두라고 하는데...



주경미

'따르릉~ ~ 네, 여기는 평등의 전화입니다.' '계약적으로 7년을 일했는데요. 이번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노동상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광주지역 여성고용현황을 보면(2011년 6월 기준) 여성경제활동인구는 31만명(50.7%)으로 전국평균 51.3%보다 낮다.

이렇게 여성들은 일에 대한 긍정성과 일자리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여성이 일을 하는데 장애물이 너무도 많다.

정적이고 일하기를 원한다. 더구나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기를 희망한다. 연령에 따라,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일을 원하는 이유는 다를 수 있다.

일부 상인 저울 속임수 눈살...정직하게 장사했으면

소비자가 시장에서 공이나 우락 등 헛감과 일반 수산물을 살 때 그 정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수산물의 무게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결국 저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통적으로 느끼는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정말 일부 상인들이 저울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

것도 있다고 한다. 결국 소비자들은 적게는 몇천원에서 많게는 1~2만원에 이르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지자체에서는 추석을 맞아 일제 단속을 해주고 시장 상인들은 정직하게 영업해주기 바란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無等鼓. '스포츠계에서 출세하려면 대학에 가면 안 된다?' 유난히 학벌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고졸 출신들이 전성시대를 맞고 있는 곳이 있다.

The Kwangju Ilbo. 회장 김鐘宅,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